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갈 길 멀다

## 중기중앙회, 광주 대기업 협력업체 애로조사

광주전남지역 대기업 협력업체 10곳 중 7곳이 심각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납품물량감소와 낮은 납품단가를 동반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했으며 동반성장여건을 좋다고 보고있는 기업은 0.8%에 그쳤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 본부가 발표한 '2019년 3분기 광주지역 대기업 협력업체 경영애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협력업체들 73.1%가 자사의 경영상황에 대해 '나쁘다'고 응답했다. '동일하다'는 24.6%, '좋다'는 2.3%에 그쳐 협력업체의 경영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실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130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협력업체의 경영애로를(복수응답)

**'좋다' 0.8% 그쳐... 물량감소·낮은 납품단가 지적**  
**"공공거래 질서 확립 자생력 강화 지원 노력 절실"**

살펴보면 '국내수요 감소' (53.1%)와 '인건비 상승' (16.0%)이 최대 경영애로사항으로 조사됐다. 이어 '자금조달 곤란' (15.4%), '업체간 과당경쟁' (7.4%) 순으로 집계됐다.

대기업간의 거래 및 동반성장 여건에서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0.8%에 그쳤다.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54.6%, '동일하다'는 44.6%를 차지했다. '나빠졌다'고 응답한 주요원인으로는 '납품물량 감소' (48.3%)와 '낮은 납품단가' (39.1%)를 꼽았다.

특히 납품단가 적정성에 대해서는

80.0%의 협력업체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적절한 납품단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상승 등 인건비' (65.4%), '원재료 등 재료비 변동분' (28.5%)이 반영돼 한다고 답했다.

동반성장 여건 개선을 위해 대기업에 바라는 사항으로는 '납품물량 보장' (39.0%), '적정한 납품단가 반영' (35.8%), '중소기업을 협력 파트너로 인식' (18.9%), '공정거래 준수' (3.9%)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 대책으로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강화' (32.9%), '중소

기업 자생력 강화지원' (24.0%),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 및 인식개선' (20.9%), '지역산업 다변화 및 신규대기업 유치' (10.5%), '대기업 해외이전 방지' (7.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지자체에 바라는 중소기업 지원책으로는 지속적인 내수부진 등 경기악화로 인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불합리한 중소기업 규제완화,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장윤성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지난 2분기 결과와 비교해 이번 3분기의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상황과 동반성장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며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상호성 있는 법과 제도를 기반으로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을 진정한 동반성장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광주전남지역 우수기업 25개사는 최근 진행된 '베트남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 200만 달러의 신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중기지방청 제공

## 중기청, 베트남바이어 수출상담회 지역 25개사 200만달러 수출계약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은 1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베트남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통해 수출컨소시엄 사업에 참여중인 지역 내 우수기업 25개사가 200만 달러의 신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지난 베트남 상담회를 통해 발굴한 베트남 팻장 경제인협회 등 20여명의 우수 바이어들을 국내로 초청해 컨소시엄 참여기업들과 상담 기회를 마련했다.

협의회 소속 25개사가 참가한 이번 상담회는 개별상담 이전에 각 업체 대표들이 직접 상품을 설명하며 베트남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었고, 문화교류 행사를 통해 양국 기업들이 신뢰를 구축하는 시간도 가졌다.

상담 결과, 고려홍삼(대표 박종실), 벨

라지안(대표 김성재) 등 25개 업체가 200만 달러의 신규 계약을 체결해 꾸준히 이어진 현지마케팅 활동의 성과를 거뒀다.

김문환 중기지방청장은 "베트남 기업인들의 교류행사는 동남아 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베트남에 우리지역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수출컨소시엄을 발굴하여 관내 우수기업들의 해외 판로개척 활동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수출컨소시엄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사단법인 미래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주관하고 베트남 진출을 목표로 하는 25개 기업으로 구성되었다. /길용현 기자

## 음악소모임 '사직감성' 개최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18일 저녁 7시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남구 사직동 옛 KBS건물) 1층 라운지에서 음악소모임 '사직감성 : 가을, 그 감성·대학가요제'를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음악소모임 '사직감성'은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가 보유한 음악관련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고, 지역민들에게 음악산업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봄, 그 감성·엘튼 존(Elton John)'과 '여름, 그 감성·산울림'에 이어 '가을, 그 감성·대학가요제'를 주제로 정한 이번 사직감성은 1977년부터 이어져 온 대학가요제의 다양한 음악들과, 각종 미디어에서 사용된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 대학가요제를 재조명할 예정이다.

계절마다 다른 주제로 열리는 사직감성은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가 보유한 1만 2,000여장의 LP음반과 도서 등을 활용하여 음악을 감상하면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며 참석자들이 서로 교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소모임의 참여신청은 현장접수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길용현 기자



한전KPS 김범년 사장과 마이스터고 교장 협의회 안규완 부회장이 '한전KPS-패러데이 스쿨 공동운영' 협약서에 서명 후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전KPS제공

## 한전KPS, 차세대 기술명장 육성

### 마이스터고 학생 1천여명 현장 기술교육

한전KPS(사장 김범년)가 국가 산업발전의 기반이 될 차세대 기술명장 육성에 나선다.

한전KPS는 최근 나주 본사에서 김범년 한전KPS사장과 안규완 마이스터고 교장협의회 부회장, 이유경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교장, 고광욱 충북에너지고 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전KPS-패러데이 스쿨 공동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패러데이 스쿨'은 한전KPS의 보유 역량을 활용해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기술교육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습교육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 적응력을 배양해 기술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미애 기자

한전KPS는 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발전정비분야 현장기술교육 시행 ▲발전정비분야 교사직무연수과정 운영 ▲불용발전설비 실습기자재 지원 ▲우수·취약계층 학생 학업장려금 지원 등에 나선다.

이를 통해 차세대 기술명장 1,000명 육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범년 사장은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현장실습 경험은 이론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이번 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기술명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 목포시 1금고 광주은행 품었다

### 59년 독점 기업은행 고배... 2금고 농협 선정

목포시 차기 시 금고로 광주은행과 농협은행이 선정됐다. 시는 현 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지정을 위해 지난 9월 2일 공개경쟁 신청 공고를 했다.

공고 결과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목포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위원회를 열고 3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등 5개 항목에 대해 심의·평가했다.

평가 결과 1순위에 광주은행, 2순위에 농협은행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시 금고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목포시 금고 업무를

수행한다. 1금고인 광주은행은 일반회계, 통합관리기금 등 약 9,000억원(2019년 예산기준)을 운영한다. 2금고인 농협은행은 특별회계와 통합관리기금 이외의 기금 등 1,200억원을 맡는다.

1961년부터 목포시 1금고는 기업은행이 맡아왔다. 광주은행은 송중욱 행장을 필두로 임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유지에 나서 58년 만에 1금고를 품어 안았다.

광주은행은 목포 해상케이블카 신설사업에 100억원을, 중소기업 대출에 5,000억원(지난해 말 기준)을 지원했다.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양산단 기업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10월 중에 금고지정 결과 공고 및 통지를 거쳐 최종 금고 약정 체결을 할 예정이다. /목포=박승경 기자



DAELASOO

# 대라수<sup>經</sup> 는 고객의 요구를 앞서 생각하는 설계와 시공으로 공간을 넘어 도시의 가치를 창조합니다.

대라수건설(주)

